

# 안우진, 졌지만 1선발 잠재력 보여줬다

### 롯데와 개막전서 6이닝 2실점... 투구수 관리 못해 홍 감독 "제구 제대로 안돼... 완성형 아닌 미래형"

키움 히어로즈의 개막전 선발로 나선 안우진(23)이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사령탑은 그의 투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쏘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안우진이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했다. 위기 상황에서 실투가 나와 박승욱에게 결승타를 맞았지만, 본인에게 큰 공부가 됐을 것"이라며 "안우진을 왜 1선발에 넣었는지 증명하는 투구를 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에이스 에릭 요키시를 제치고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은 안우진은 2일 롯데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6이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삼진 7개를 잡았고, 볼넷은 2개를 내줬다.

5회가 두고두고 아쉬웠다. 1, 2회초를 모두 삼자범퇴로 끝내는 등 4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던 안우진은 팀이 1-0으로 앞선 5회초 정훈에 우전 안타를, 한동희에 2루타를 맞고 무사 2, 3루에 몰렸다.

안우진은 고승민, 지시완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박승욱에게 2타점 우전 적시 2루타를 얻어맞아 롯데의 역전을 허용했다. 키움이 승부를 뒤집지 못한채 2-7로 패

배하면서 안우진도 패전 투수가 됐다. 홍 감독은 "좋은 선발 투수는 마운드에 오래 있어야 한다. 투구수 관리를 잘해야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다"며 "어제 안우진이 하위타선에 배치된 타자들과 풀카운트까지 승부하면서 6이닝 밖에 던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안우진의 구속과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하면 매 경기 7이닝 정도를 던져줘야 한다"면서 "안우진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 좋아질 선수"라고 기대했다.

안우진이 최고 시속 159km의 공을 뿌린 것에 대해 홍 감독은 "구속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이 빨라도 제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구속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안우진은 직구(38개)보다 슬라이더(42개)를 더 많이 던졌다. 여기에 커브(19개)와 체인지업(5개)을 섞었다.

홍 감독은 "안우진을 상대하는 타자들은 빠른 공을 대비하고 들어온다. 안우진이 빠른 공을 더 뒤력적인 무기로 삼으려면 변화구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며 "변화를 줘서 상대 타선에 혼란을 주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7회말 1사 2,3루에서 두산 김민태에게 2타점 2루타를 내주며 동점을 허용한 키움 선발 안우진이 교체되고 있다. 뉴스시스

설명했다. 홍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 데뷔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지 않아 긍정적이다. 어제 모습은 분명 좋았다"면서도 "하지만 한 경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힘들다. 어린 선수고, 신인이니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 벤투호, 16강 도전해 볼만... 죽음의 조 피하고 세 경기 한 곳서 치러

### 월드컵 조추첨... 포르투갈·우루과이·가나와 H조 편성 알 라이안서 경기... 이동 부담없고 잔디 적응에도 유리

한국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같은 장소에서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세 경기를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호사를 누리는 팀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3국이다.

한국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도하 전시컨벤션센터(ECC)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을 통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H조에 편성됐다.

또 이어 나온 경기 일정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알 라이안에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갖게 됐다. 한국은 11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전, 11월 28일 오후 10시 가나전을 치른 뒤 12월 3일 0시에 포르투갈전을 치르게 되어 있어 경기 시간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같은 장소에서 치른다는 것은 큰 이점이다. 일단 조별리그 동안 다른 경기장 잔디 적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할 필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가 치러지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뉴스시스

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카타르 국토 면적이 11571km<sup>2</sup>로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11704km<sup>2</sup>) 정도에 불과해 이동에 따른 부담이 없는데 경기장까지 가까우니 한 장소에 머물면서 경기를 대비할 수 있다. 개최국 카타르도 조별리그 두 경기만

알 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치르는데도 한국처럼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호사를 누리는 팀이 둘 더 있다.

B조에 속한 유럽지역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유럽지역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11월 22일 오전 4시 미국전을 갖고 11월 25일 오후 7시 이란전, 11월 30일 오전 4시 잉글랜드전을 차례로 치른다.

또 D조의 남미-아시아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리팀도 알 자눌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전(11월 23일 오전 4시), 튀니지전(11월 26일 오후 7시), 덴마크전(12월 1일 0시)을 갖는다.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 빅히트뮤직

# 방탄소년단 그라미 완전체 무대

### 정국, 미국에서 격리 해제

그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제 64회 그라미 어워즈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정국이 미국 현지시간 2일(토)부터 격리 해제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정국은 미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현지에서 자가격리 및 치료를 받았다. 미국 내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

정국은 격리 해제 후 그라미 어워즈 스케줄 합류를 위해 현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확인돼 주최 측의 허가에 따라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국이 올해 '그라미 어워즈'를 일

### 주일가량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뒤 뒤늦게 2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제이홉 역시 완치 판정을 받아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그라미 어워즈 무대에 방탄소년단은 일곱 멤버 모두 '완전체'로 오르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라미 어워즈에서 글로벌 히트곡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라 있다. 퍼포머로서도 3년 연속 무대에 오른다.

방탄소년단은 8-9일, 15-16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도 4차례 연다.

# '현재는 아름다워', 역시 KBS 2TV 주말극

### 시청률 24.5%로 출발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가 첫회부터 흥행 조짐을 예고했다. 3일 날스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현재는 아름다워' 1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4.5%를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 38.2%를 찍은 전작 '신사와 아가씨' 1회 시청률 22.7%(작년 9월 25일)보다 1.8%p 높은 숫자다.

'현재는 아름다워'는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 나이 꼭 찬 이가 삼형제가 집안 어른들이 내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보



배우 오민석(왼쪽부터), 신동미, 윤시윤, 배다빈, 서범준, 최예빈이 1일 KBS 2TV 주말극 '현재는 아름다워'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기 힘든 4대가 어우러진 대가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삼형제의 세 커플이 어떻게 맺어질지에 대한 서사도 펼쳐졌다. '현재는 아름다워'엔 윤시윤, 배다빈, 오민석, 신동미, 박인연, 박상원 등이 출연한다.

## BEYOND GOLF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